

MLB 포스트시즌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다음 라운드가 뭐지?”예요. 특히 2026 시즌에서는 지구 우승팀이 갈리는 순간이 되게 명확해요. 지구 우승팀 가운데 상위 2팀은 디비전시리즈로 직행하고, 나머지 4팀은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먼저 치르는 구조로 안내돼 있거든요. 그래서 mlb중계 챙기는 입장에서는, “지금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지?”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구 우승팀 상위 2팀이면 다음 라운드가 어디야?”를 빠르게 확인하는 게 체감상 훨씬 중요해집니다.



오늘은 그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될 헛갈리는지,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볼 때 생기는 함정까지 같이 정리해볼게요. 야구중계는 결국 ‘타이밍 싸움’이니까요.

2026 MLB 포스트시즌 구조부터 딱 잡기

2026 MLB 정규시즌은 162경기 체제로 운영돼요. 그리고 공식 안내에 따르면 정규시즌은 2026년 3월 25일(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vs 뉴욕 양키스 경기로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공식 MLB 일정 페이지에서 업데이트되고, 포스트시즌에서도 순위가 반영된다고 안내돼요.

핵심은 포스트시즌 진입 방식이에요. 공식 순위 페이지에는 지구 우승팀 상위 2팀이 디비전시리즈로 직행하고, 나머지 4팀은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치르는 구조가 안내돼 있어요. 여기서 “상위 2팀”이라는 말이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구 우승만 하면 다 똑같이 디비전시리즈로 가는 거 아냐?”라고 오해하는데, 공식 구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지구 우승팀은 맞지만, 그중 성적이 더 좋은 상위 2팀이 다음이 달라집니다. 나머지 팀들은 한 번 더 와일드카드를 통과해야 디비전시리즈로 넘어가요.

이 차이가 있으면 야구중계 보는 사람의 준비 방식도 바뀝니다. 디비전시리즈 직행이면 “그 라운드의 라인업과 선발 그림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집중하게 되고, 와일드카드 경기를 먼저 치르는 팀이면 “그 한 경기에서 누가 살아남느냐”가 더 급해지죠.

“상위 2팀”을 확인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여기서 중요한 건, 특정 팀을 내가 미리 짚어서 맞힐 수는 없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상위 2팀”은 정규시즌 결과에 따라 바뀌는 거라서, 오늘 당장 특정 구단을 단정하면 사실과 달라질 수 있어요. 대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 네가 직접 확인하는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MLB 순위 페이지가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페이지에서 지구 우승팀들의 순위를 보고 상위 2팀을 잡아내는 방식이 가장 깔끔해요. 그리고 일정도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갱신되니까, 순위가 정해진 뒤에는

“다음 라운드가 언제 열리는지”를 시간까지 맞춰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실제로 많이 겪은 답답함이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포스트시즌이 시작하면 중계가 뜨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라운드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검색이 폭주하거든요. 그러면 야구중계사이트를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시간 표기나 중계 채널이 서로 달라서 헷갈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루틴을 하나 정하면 편합니다. 아래처럼요.

- MLB 공식 순위 페이지에서 지구 우승팀 구도를 확인한다
- 지구 우승팀 가운데 상위 2팀이 누구인지 확인한다
- 그 팀들이 디비전시리즈로 직행인지, 아니면 와일드카드 시리즈부터인지 확인한다
- 일정 페이지에서 다음 라운드 시작 시간을 확인한다

이렇게만 해도 “내가 보고 싶었던 경기 라운드가 갑자기 바뀌는” 최악의 상황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한국 시간 변환이 은근히 크게 작동함

MLB중계 보다가 제일 자주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시간이에요. MLB 일정 표기는 ET, 즉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표준 표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 동부의 시차는 보통 13시간이라고 안내돼 있죠.

예를 들어 ET 기준으로 밤 8시에 시작이면 한국에서는 보통 오전 9시쯤으로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대략은 변환이 되지만, 실제로는 그날 날짜가 바뀌는지, 한국에서 어떤 시각이 되는지가 헷갈릴 수 있어요. 특히 주말이나 포스트 시즌처럼 경기 수가 몰리는 기간에는 “전날로 착각”하거나 “하루 밀려서 봐버리는”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면에 찍힌 시간을 변환해서 외우기보다는, 가능하면 야구중계사이트든 어디든 간에 “내가 보려고 하는 경기가 실제로 내 시간 기준으로 몇 시인지”를 한 번은 확인하는 편이에요. 공식 일정 페이지가 시간을 주니까, 그걸 기준으로 잡고 들어가면 심리적으로도 편해요.

이게 야구중계사이트를 고를 때도 이어집니다. 공식 일정에서 경기 시간과 중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 있으니, 사이트를 고를 때도 최소한의 기준을 공식과 대조해서 맞추는 게 좋아요. 우천 취소나 연기 같은 변수가 생길 때는 더더욱요.



디비전시리즈 직행이면 “다음 라운드”가 빠르다

공식 구조상 상위 2팀 지구 우승팀은 디비전시리즈로 직행해요. 그러니까 이 팀들은 와일드카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음 라운드를 밟는 흐름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포스트시즌은 경기 간격이 짧아지기 때문에 투수 운영, 타순 운용 같은 것들이 심리적으로도 더 민감해지거든요. 물론 특정 팀의 로테이션을 내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 경기 덜 치른다”는 사실만으로도 체력과 준비 시간이 달라질 가능성이 커져요.

반대로 와일드카드 시리즈부터 치르는 지구 우승팀 4팀은 첫 관문을 먼저 통과해야 디비전시리즈로 넘어가요. 이 구도에서는 초반 한 경기 승부가 곧바로 다음 라운드를 가르는 키가 됩니다. 그래서 중계를 보면서도 “오늘 경기의 결과가 라운드 판을 어떻게 바꿀까”를 같이 보게 돼요.

결국 같은 포스트시즌이어도, 내가 보고 있는 팀이 디비전시리즈 직행인지, 와일드카드부터인지에 따라 중계 감정이 달라집니다. 디비전시리즈 직행 팀은 “더 큰 그림”에 집중하게 되고, 와일드카드는 “지금 이 한 경기”에 몰입하게 돼요.

그럼 “상위 2팀”은 언제 확정되나?

이 질문은 대부분 “마지막 주에만 보면 되나?”로 이어져요. 그런데 정답은, 시즌이 진행되면서 계속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공식 순위 페이지는 포스트시즌 구조에 맞춰 업데이트가 된다고 안내돼 있으니, 결국은 정규시즌이 끝나가는 흐름 안에서 상위 2팀이 잡혀가는 시점을 순위 페이지로 계속 확인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한 번에 다 보려는 욕심”을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지막 몇 주 동안은 그냥 결과만 보지 말고, 지구 우승팀 순위 구도를 같이 보세요. 상위 2팀에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음 라운드 일정 확인을 [야구중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Mlb중계는 늦게 준비하면 원하는 경기 시작 전에 접근성이 떨어질 때가 생겨서요.

그리고 또 하나. 야구중계사이트를 찾을 때는 단순히 “중계가 뜨는지”만 보지 말고, 공식 일정에서 제공하는 경기 시간과 중계 관련 정보를 기준으로 맞는지 한 번은 점검해보는 게 좋아요. 사이트마다 표기 방식이 달라서, 같은 경기도 시간을 다르게 보여주는 경우가 은근히 생깁니다.

야구중계사이트 고를 때, 이건 꼭 체크해봐

여기서는 특정 사이트를 추천하기보다, “무엇을 확인해야 덜 틀리나”를 말해볼게요. 공식적으로 MLB 일정에는 “Where to watch” 같은 시청 관련 안내가 있고, 한국 쪽에서도 일정 페이지에서 TV나 라디오 같은 항목이 제공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그러니 중계 보려는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 부분을 확인하면 시행착오가 줄어듭니다.

특히 포스트시즌은 일정이 촘촘해서, 채널이 바뀌거나 경기 시간이 밀리면 바로 티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 같은 체크만 머릿속에 고정해두고 넘어가요.

- 내 지역(한국) 기준으로 경기 시작 시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는지
- 그 경기 라운드가 정확히 디비전시리즈인지, 와일드카드 시리즈인지 확인했는지
- 중계 채널 표기가 공식 일정의 내용과 맞물리는지 확인했는지
- 우천 취소나 연기 같은 변수를 반영해 재확인이 가능한지 확인했는지

이 정도면 “봤는데 내가 보던 경기가 아닌 걸 틀어봤다” 같은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야구중계사이트는 편하지만, 편함만 믿고 들어가면 포스트시즌에서 특히 한 방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2026 정규시즌 개막 이후, 중계 흐름을 어떻게 잡을지

정규시즌 개막이 3월 25일로 안내돼 있고, 일정 페이지는 업데이트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초반에 경기 시청을 고르기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지구 우승 상위 2팀”이라는 주제로 접근한다면, 초반부터 뭘 하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초반에는 너무 멀리 예측하기보다는, 두 가지를 습관으로 잡는 걸 추천해요.

첫째, 순위를 계속 확인하는 습관이에요. 지구 우승팀 구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상위 2팀 자리를 누가 가져가는지 흐름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물론 초반에는 변동성이 크겠지만, 어차피 나중에 확인할 거면 초반부터 보는 게 덜 막막해요.

둘째, 야구중계를 보는 시간표를 한국 시간으로 고정하는 습관이에요. ET 기준 표기가 익숙하지 않으면 계속 계산해야 하는데, 포스트시즌 가까워질수록 계산 피로도가 누적돼요. 그래서 초반부터 “내가 주로 보는 시간대에 어떤 경기들이 오는지”를 한 번만 정리해두면, 나중에 포스트시즌 직행팀 확인할 때도 덜 헤매게 됩니다.

“상위 2팀” 확인이 곧 시청 전략이 되는 이유

솔직히 말하면, 포스트시즌 직전에는 중계 선택지가 엄청 많아져요. 어떤 경기든 다 재미있긴 한데, 그날 밤에 딱 한 경기를 고른다면 선택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구 우승팀 상위 2팀은 디비전시리즈로 직행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안내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팀들이 확정되는 시점부터는, “이 팀들의 다음 라운드 중계 일정”을 우선순위로 올리는 게 합리적입니다. 와일드카드부터 시작하는 팀들은 첫 관문에서 누가 살아남는지가 변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상대도 달라지니까요.

결국 mlb중계에서 효율을 챙기는 사람들은 “지금 누가 강하냐”를 넘어 “포스트시즌 경로가 뭘가”를 먼저 봅니다. 경로가 보이면 시간표도 빨리 짜지고, 야구중계사이트에서 어떤 경기 우선으로 접근할지도 결정이 나거든요.

마지막으로, 네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체크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바로 실행 가능한 건 어렵지 않아요. 시즌이 진행 중이라면 순위 페이지에서 지구 우승팀 상위 2팀을 확인해보고, 그들이 디비전시리즈로 직행인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 페이지에서 그 다음 라운드의 시작 시간을 한국 시간 기준으로 한 번 점검해두세요.

야구중계는 결국 “경기 시작 전에 손이 움직여야” 성공이에요. 상위 2팀의 다음 라운드를 확인하는 건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실제로는 네 시청 경험을 더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준비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